



우리시대 참스승

이동중학교 교장 김 춘 성

‘내 품에 꿈을 안고 웅비하는 이동인 육성’

집중력 있는 자기주도 학습시간 활용 공부 잘하는 학생 육성

“사제동행, 학생과의 약속 지키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교사는 학생과의 Rapport(친밀감)를 교육의 밑바탕으로 삼아 믿음과 친절, 배려와 사랑의 교육을 강조하며 실천해야 한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미래를 대비해야 함을 수시로 강조하고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상은 포천시 이동면 소재 이동중학교 김춘성 교장의 교육소신이다. 김춘성(56·사진) 교장은 전남 함평군 영단면 신계리에서 태어나 영단초등학교, 함평중학교, 서리별고등학교, 인천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김 교장은 양평군 금암초등학교에 첫 부임후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하여 중등학교 일반사회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1981년 포천여자중학교, 1985년 의정부중학교, 1993년 연천중학교고등학교, 1996년 대광중학교, 1999년 송현고 개교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으며 교감으로 승진하여 2000년 호원고등학교에 근무했으며 교장으로 승진해 2005년9월1일 이동중학교에 부임했다.

김 교장은 이동중학교의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우선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나섰다. 2006년 산촌학생도 도시학생과 같은 환경 속에서 학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포천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도서실을 최신행 컴퓨터 디지털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했으며 소규모 학교의 도서실 운영을 위해 학부모 도서도우미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의 기초체력 확보를 목적으로 체육관에 총 8종의 기구를 갖춘 헬스룸 1실을 설치하고 학생들의 편안하고 쾌적한 급식을 위해 식당도 리모델링했다.

특기적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14개 동아리(밴드반 및 방송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RCY(기독교봉사단체) 창설 후 이동면 경로잔치에 참여하여 어르신들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는 등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교육혁신사업으로 생활지도의 방향은 감성지도와 예방지도에 중점을 두고 학생과 함께하는 생활지도도를 강화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과 1교사 1결연을 맺고 월 2회 이상 상담을 실시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돕고 있으며 학생부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방과후 체화활동으로 각종 체육활동, 독서, 학생봉사활동, 명화감상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담당지도교사와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스스로 어려움을 해쳐 나가는 능력을 함양하고 있다.

또 꽃의 아름다움이 학생들의 마음에 고스란히 안착되어 아름다운 마음씨를 갖게 하기 위한 꽃밭 가꾸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꽃 900본을 마련해 학부모-교직원들이 함께 학교에 꽃이 만발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집중력 기르기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자기주도 학습이 습관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집중력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김 교장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는 미래학자의 주장처럼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학습을 강조하고 “어른께는 기쁨을 드리고 사랑 받는 학생이 되자”라는 교육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교장은 “나는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등교하고 “나는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를 생각하며 학교하는 이동중학교 출신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북대 (주)새턴바스와 산학협동협정식

대학과 산업체간 기술지식과 설비 공유

경북대학(학장 이지승)은 5월8일 오후 2시 우당관 3층 회의실에서 (주)새턴바스(대표이사 정인환)와 산학협동협정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경북대학 이지승 학장과 전지용 부학장, 김경복 학생지원처장, 김기준 산업디자인과 학과장과 (주)새턴바스 정인환 대표이사, 한복열 상무이사, 디자인부 신용호 부장 등이 참석했다.

대학과 산업체간 기술지식과 설비 등을 상호 협조 및 공유하기 위해 가진 이날 협정식에 참석한 (주)새턴바스는 육조 및 육실용품 제조기술에서 국내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업체로 알려져 있다.

1990년8월6일 설립된 (주)새턴바스는 자본금 11억7천100만원으로 시작해 연간 매출액은 300억원이며 종업원수는 130여명의 건설한 중소기업이며 본사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장은 포천시 선단동에 있다.

경북대학은 16개학과 5천800여명

의 학생이 재학생이며 1991년11월 30일 6개학과 640명 정원의 경성전문대학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날 특강은 인생의 목표와 비전,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자기 브랜드 만들기 등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꿈을 가지기 위한 사색의 자리가 되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제26회 스승의 날 기념식

동남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

동남고등학교(교장 조대행)는 5월15일 제26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교사와 학생들간의 뜻깊은 행사로 마련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대동남장학회(이사장 전방진) 장학금과 무봉리토종순대국(회장 김종복) 장학금 전달식으로 진행했다.

대동남장학회는 학교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모범적인 학생 중, 중학생 10명과 고등학생 10명 등 총 20명을 선정하여 700만원을 장

학금으로 전달했고, 무봉리토종순대국 장학금은 학교성적이 우수한 학생 5명과 품행이 모범적인 학생 5명 등 총 10명의 학생들을 선정하여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 후 동남

중·고등학교 허기홍 동문회장은 후배들에게 “열심히 학업을 닦아 개인의 영광은 물론 학교의 발전에 이바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장학의 뜻을 밝히고 동남고등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한 무봉리토종순대국 김종복 회장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북돋워주고자 장학금을 기부한다”며 “비록 올해 처음 시작하지만 해마다 장학사업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무봉리 토종순대국 김종복 회장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동남중고등학교 허기홍 동문회장이 대동남장학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나눔장터 체험 경제교육

선단초등학교 학생·학부모 함께 마련



선단초등학교(교장 이상식)는 4월21일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는 나눔장터를 마련해 학생들에게 체험 경제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학생들은 저마다 집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서 실제 상점과 같이 상호를 정하고, 가격표를 만들어 물건을 진열했다.

학생들이 들고 나온 물건은 장난감, 옷, 시계, 학습비디오, 책, 장신구,CD등으로 매우 다양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물건이 팔리기를 바라며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물건을 구입하는 학생들은 어떤 물건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지 꼼꼼히 따지기도 했다. 평소 갖고 싶었지만 고가여서 구입하지 못했던 물건을 구입하고 기뻐하는 어린이와 동생이나 어머니의 물건을 구입해 선물할 생각에 미소짓는 어린이들도 있다.

나눔 장터 행사를 통해 물건을 팔고, 사는 활동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학생들은 소비자의 역할과 판매자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었다.

어린이들의 장터는 물론 어머니회가 마련한 학부모 바자회에서 거둔 수익금 200여만원은 학생들의 도서 구입에 사용할 계획이며 학생들이 팔고 남은 물건 6바스는 포천 아름다운가게에 기증하기도 했다.

이날 모금함에는 20만5천원이 모아졌으며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이론으로만 공부하면 얻을 수 없는 경제개념을 체험을 통해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고 아직 우리 사회에 정착되지 못한 기부 문화를 학생들이 체험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함께 공부해요 》

朋友之交(붕우 지교) ㉓

(장유간의 질서를 밝힘)

공子曰居是邦也 하여 事其大夫之賢者 하며 友其士之仁者也 나라. 공자가 거처방아 사기대부기현자 우기사지인자야

공자가 말하기를 “어느 나라에 살든 그 나라 대부(大夫)의 현명한 이를 섬기고 그 나라 선비의 어진 이를 벗으로 삼아야 한다” 하였다.

현명한 대부를 섬기고, 어진 선비를 벗으로 삼는 것은 그 덕행을 본받아서 훌륭한 인격을 도야(陶冶) 하려는 것이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이라 생각이 된다.

너는 서요 나는 동이요, 흑백 논리를 일삼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이 아닌가.



문의 : 011-354-6485

양주승
복지연구원장



윤중성의 국제비즈니스 미국영어



방문/출장

- 9. < 공장 방문 > : (1)
- * 한국에서 오신 “잭” 이시지요? 큐스미, 유아“잭”후림코리아 안쥬? <Excuse me, you're Jack from Korea, aren't you?>
- * 예, 그렇습니다
- 예스, 아이엠 <Yes, I am.>
- * 저는 자하르사에서 나온 앤드레이 라고 합니다
- 아이 “앤드레이” 후림 자하르 캄파니 <I'm Andrey from Zahar Co.,>
- * 오늘 우리회사 공장에 가시기로 했지요? 워셔포우스트 비지유어팩토리투데이 <We're supposed to visit your factory today.>
- * 공장이 여기서 먼가요? 이시화후림하여 투데팩토리? <Is it far from here to the factory?>
- * 1 시간 반 좀 걸립니다
- 이테이서바우 랜어위 에너합후 <It takes about an hour and a half.>
- * 오래 안 걸리네요
- 넛투우롱 <Not too long.>
- * 지금 떠나실까요? 사무리브너우? <Shall we leave now?>

문의 : 윤 중 성 (017-723-4977)cdlyoon@nate.com

스승의 날 퇴직교원 초청 사은회

경기도포천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청(교육장 최길용)은 5월14일 평강식물원에서 제26회 스승의 날을 맞아 퇴직교원 60여명을 초청해 사은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은회는 평생을 2세 교육을 위해 헌신해온 선배 퇴직교원의 공적에 대해 감사하는 자리로 후배교원과 선배교원과

의 만남의 장을 통해 포천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았다.

최길용 경기도포천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배님들이 교단을 떠난 후 먼 곳에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마음으로는 언제나 가까이서 포천 교육의 지주 역할을 해주시는 선배님들에게 감사드리며 내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미래 과학기술 인력 육성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365명 참가

경기도포천교육청(교육장 최길용)은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 창의적 탐구력을 길러주고 이를 통해 우수한 청소년들이 과학적 소질을 개발하고 진로 선택의 격려로 미래 과학기술 인력 육성에 공헌하기 위해 청소년 과학탐구대회를 개최했다.

5월10일 경기도포천교육청 대회의실, 과학실 그리고 포천종합체육관, 포천종합운동장 등에서 초·중등 학생들의 과학적 기량을 겨루는 장이 마련됐다.

이번 최길용 경기도포천교육장은 격려사를 통해 “과학자의 꿈은 어려서부터 길러야 하며 끊임없는 노력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제 집착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회는 학교대회와 시대회

로 구분하여 희망하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대회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실시종목은 과학그림탐구대회(55명), 항공과학탐구대회(114명), 로켓과학탐구대회(39명), 전자과학탐구대회(40명), 기계과학탐구대회

(46명), 로켓과학탐구대회(56명), 과학탐구토론대회(5팀 15명)이며 총 365명이 참가하여 진행됐다.

이번 대회 각 부분별 대상·금상·은상·동상(종목별 초등 40명, 중등 17명) 수상 학생에게는 교육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며 이번 대회의 대상 수상자(초등부 7명, 중학부 7명)는 경기도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부여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